

# 『東醫寶鑑』의 ‘類聚’ 인용문에 대한 고찰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팀 안상우

## Effect of 『Eui Bang Yoo Chui』 on the compilation of 『Dong Eui Bo Gam』

Ahn Sang-woo

『Eui Bang Yoo Chui』, completed in Se-jong Chosen era, has affected 『Dong Eui Bo Gam』 in various ways. I have proceeded to reveal these effects by undertaking comparative studies on the parts that overlap with each other. During this process, I was able to observe that classification used in 『Dong Eui Bo Gam』 was that of 『Eui Bang Yoo Chui』.

---

### 서 론

『東醫寶鑑』은 조선 중기까지의 의학지식이 집대성된 현전 최고의 한의학서로 편찬 당시까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의학서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중 조선의 고유 의서로는 『醫方類聚』, 『鄉藥集成方』, 『醫林撮要』와 같은 대형 의방서가 歷代醫方<sup>1)</sup>에 주요 참고문헌으로 올라 있다.

의학全科를 포괄하는 종합 방서로서의 체제나 규모로 보아 이들 세 가지 의서가 『동의보감』 편찬의 주요 참고서였음에는 이의가 없으나 실제 인용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

---

1) ‘醫方類聚, 鄉藥集成方(以上 本國祖宗朝命文官醫官撰集), 醫林撮要(本國內醫鄭敬先所撰, 楊禮壽校正)’

중 『의방유취』가 직접 인용된 곳은 170여조인데 반하여 『향약집성방』은 단 2조 밖에 검색되지 않는다.<sup>2)</sup> 또 시기적으로 『동의보감』 편찬 시기와 가장 가까운 『의림촬요』도 33조 인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sup>3)</sup>

특히 『동의보감』과 『의방유취』는 각기 편찬시기만 다를 뿐 왕명에 의해 文官과 醫官이 총동원되어 당시 의학수준을 집결시킨 종합 의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비교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동의보감』에 인용된 『의방유취』 인용문(‘類聚’)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의방유취』로 대변되는 조선 전기의학의 성취가 『동의보감』에 미친 영향과 조선 중기의학에 집대성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다.<sup>4)</sup> 아울러 보다 궁극적으로는 고려로부터 전승된 우리 의학의 전통을 담고 있는 『의방유취』가 『동의보감』을 통해 후대 의학에 이어지는 흔적을 찾아보고자 함이다.

왜냐하면 『의방유취』는 『동의보감』의 편찬 당대에 쓰여진 것 이후로는 역대 의서에 직접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하여 『동의보감』은 편찬 이후 현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리 보급된 의서이기 때문이다.<sup>5)</sup> 이에 『동의보감』과 편찬 당대 이후에 나타나는 의서의 유취 인용문을 조사하여 대조해 봄으로써 조선 후기 의학에 이어진 傳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 1. 『동의보감』의 ‘類聚’ 인용문 분석

### 1.1 조사방식

『東醫寶鑑』은 역대 의방서의 주요 내용을 발취 요약하여 短文 형식으로 인용하였으며, 매 문장마다 出典注記가 명확하여 인용서의 인용현황을 조사하기에 비교적 편리하다. 일부 원출처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곳도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현재 失傳된 문헌이 많고 당시 사용된 판본에 대한 정확한 고증이 없어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곤란한 것으로 여겨진다.<sup>6)</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단 원문에서 ‘類聚’라고 출전이 명기된 직접 인용문에 한해서 조사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재인용 혹은 『의방유취』내 인용서의 원용까지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결과에 분석에 앞서 『동의보감』 인용빈도가 높은 역대 주요 의방서의 인용현

2) 『동의보감』 본문에서 『의방유취』는 ‘類聚’로 약칭되어 있다. 『향약집성방』은 약칭 ‘鄉集’으로 검색한 경우, 갑병편 해수문에서 寒嗽의 飴薑元과 痰嗽의 藍漆煎元 단 2조의 처방만 검출된다.

3)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北京: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p.79, 81.

4) 趙高. 「의방유취가 동의보감 편찬에 미친 영향」.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대한한의학회, 2000.

5) 『의방유취』의 간행 후 전승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방유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1998.

6) 『동의보감』 인용문의 출전 오류에 관한 문제는 金重權이 허준의 언해 의서와 『동의보감』 본문간의 차이점을 지적한 적이 있고(「諺解痘瘡集要의 서지학적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제5권, 1994) 金洪均이 『의림촬요』와 『동의보감』의 원출전 문제를 제기하였다.(「醫林撮要和 東醫寶鑑의 비교 고찰」, 전국한의학학술대회, 2000.)

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표 1. 『동의보감』의 인용현황

인용순	인용서명	저작시기	인용회수	출전약칭	歷代醫方
1	經史證類備用本草	宋	3370	本草	備用本草經史證類
2	醫學入門	明	2714	入門	同
3	丹溪心法	元	1307	丹心	同
4	得效方	元	1045	得效	同
5	醫學綱目	明	942	綱目	同
6	醫學正傳	明	518	正傳	同
7	東垣十書	金	505	東垣	同
8	銅人腧穴鍼灸圖經	宋	462	銅人	□
9	萬病回春	明	462	回春	同
10	仁齋直指方	宋	412	直指	直指方
11	黃帝內經靈樞	戰國	412	靈樞	靈樞經
12	傷寒卒病論	漢	403	仲景	傷寒論
13	資生經	宋	172	資生	□
14	醫方類聚	朝鮮	171	類聚	同
15	俗方	朝鮮	166	俗方	□
16	太平惠民和劑局方	宋	165	局方	□
17	黃帝內經素問	戰國	140	素問	素問
...	...		...		
고유 의서	醫林撮要	朝鮮	33	醫林	同
	鄉藥集成方	朝鮮	2	鄉集	同
	中朝傳習方	朝鮮	2	中朝傳習	□
	鄭北窓方	朝鮮	2	北窓	□
	備預百要方	高麗	1	百要	□

위의 표에서 『經史證類備用本草』가 3370회로 인용회수에 있어서 단연 으뜸이나 실제 인용부에 있어서는 단방과 탕액편에 집중되어 있고 인용서 자체가 『神農本草經』 이후 諸家本草書가 集注된 형식의 것이어서 단일 인용서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다음 『醫學入門』, 『丹溪心法』, 『得效方』, 『醫學綱目』의 순서로 인용도가 높으며, 단순히 처방이 인용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학설이 채택된 비중이 높은 인용서로 사용되었다. 기타 100회 이상 인용된 인용서들은 모두 역대 주요 의서로 손꼽히던 기본서로서, 『의학입문』을 필두로 『醫學正傳』, 『萬病回春』과 같은 당시 최신 의학서가 대량 편입된 것이 눈에 띈다.

이하 고유 의서 중에서 인용빈도가 높은 것으로는 『의방유취』와 『俗方』이 있을 뿐이며, 인용율에 관계없이 조사된 조선문헌의 인용도 극히 소수이다. 또 『속방』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가 고유문헌으로 여기기도 하였으나 정형화된 서적형태로 傳存되는 것이 없고 역대 여러 문헌에서 인용된 내용이 한 가지 문헌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다만 『本朝經驗』, 『東人經驗』 등의 예에서와 같이 누대로 전승되어 오던 의학내용을 초록

했을 경우 표기가 마땅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렇게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동의보감』의 내용 전반에 걸쳐 인용된 인용서로서 자국의학을 대표하는 문헌으로는 『의방유취』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조사결과

『동의보감』 전문의 ‘類聚’ 인용문을 수기 작업을 통해 일일이 조사하고 전산검색을 통해 대조 확인하여 집계한 결과는 앞서 참고표와 마찬가지로 총 171조에 달하였다. 이는 기존의 통계보다는 10여조 가량이 증가된 것이며,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부록에 제시한 조사 결과표에서는 각 항목별 인용분포를 보기 위해 대편과 소 항목별로 분류했으며, 인용되지 않은 小門도 제목을 두어 공백을 표시하였다.

## 참고표 2. 동의보감내 유취인용구 조사표 예시

편	목	조	항	인용문
內景篇 1	身形			<input type="checkbox"/>
	精			<input type="checkbox"/>
	氣	禁忌		○凡入疫癘熱病之家皆當防其毒氣傳染毒氣者大汗穢毒之氣也
	神			<input type="checkbox"/>
內景篇 2	血			<input type="checkbox"/>
	夢	魂魄爲夢		凡夢皆緣魂魄役物又曰形接而爲事神遇而爲夢
	聲音 言語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津液	盜汗	牡蠣散	○又牡蠣散治盜汗牡蠣粉白朮防風各等分爲末酒調服二錢汗即止
	痰飲			<input type="checkbox"/>
內景篇 3	五臟六腑			<input type="checkbox"/>
	肝臟			<input type="checkbox"/>
	心臟	心形象		○心形如未開蓮花上天下下銳倒懸着肺
	脾臟			<input type="checkbox"/>
	肺臟			<input type="checkbox"/>
	腎臟	腎部位		腎與臍相對與腰相應○腰者腎之外候○腎爲列女在後宮有兩枚
	膽腑			<input type="checkbox"/>
	胃腑			<input type="checkbox"/>
	小腸腑			<input type="checkbox"/>
	大腸腑			<input type="checkbox"/>
	膀胱腑			<input type="checkbox"/>
	三焦腑			<input type="checkbox"/>
	胞			<input type="checkbox"/>
	蟲	治諸蟲藥	天靈蓋散	○有一婦人兩男子俱患勞瘵服此藥婦人下一虫如蜈蚣狀一男下赤小虫數十中有一虫色微紫大於衆虫頭有細毛一男下一物如烏梅之狀撥之有足正類蜘蛛

조사된 전체 인용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동의보감』의 5대 편별로 집계된 인용회수와 소항목을 표시하고 그 특성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인용도는 각 편의 전체 소문분류 중 ‘類聚’가 인용된 조문을 나타낸다.

### 참고표 3. 동의보감의 편별 유취인용과 특성대비

편별\인용특성	인용회수/인용도	인용조목	특성
내경편	26 (8/26)	氣1, 夢1, 津液1, 心臟1, 腎臟1, 蟲1, 小便9, 大便11	*大小便門이 별문으로 구분 *五臟門, 養性門, 導引法 조문 활용
외형편	72 (14/26)	頭1, 面1, 眼32, 鼻2, 牙齒5, 咽喉14, 背1, 胸5, 腹2, 皮1, 肉2, 毛髮3, 前陰1, 後陰2	*외형분류 체계화 *眼, 咽喉 인용
잡병편	68 (21/38)	風6, 寒上3, 寒下3, 濕2, 燥2, 火3, 內傷3, 虛勞1, 咳嗽2, 積聚4, 浮腫1, 脹滿2, 消渴4, 痰瘡3, 癩瘻8, 邪祟1, 諸瘡7, 救急2, 雜方4, 婦人1, 小兒6	*잡병분류 체계화 *질병분류체계 참조 *진문 고루 인용
탕액편	2 (1/17)	蟲部2	*향약본초의 영향 *향약명 병기 *단방과 상호연계
침구편	3 (1/1)	鍼灸3	*침구편 독립 *침구법과 상호연계

위의 표에서 『동의보감』 본편에 해당하는 내경, 외형, 잡병 3편에 걸쳐 『의방유취』가 폭넓게 인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 병증 각목은 『의방유취』의 세분된 질병분류가 재편된 것이며, 구체적으로 내경편의 경우 『의방유취』의 五臟門, 養性門으로부터, 외형편의 경우 안, 인후문 등에서 실제 내용의 인용빈도, 잡병편의 경우 질병분류 체계와 인용도에서 영향성이 인정된다.<sup>7)</sup>

## 2. 조선 후기 의서의 『醫方類聚』 인용 현황

### 2.1 『동의보감』과 편찬 당대 의서의 인용

조선 전기 즉, 1445년 『의방유취』 편찬이 완료된 이후 교정 및 간행에 이르는 동안 이미 『救急方』, 『瘡疹集』과 같은 전문의서가 『의방유취』를 모본으로 출간되었다. 이들은 단순히 『의방유취』의 일부 내용을 인용한 것이 아니고 『의방유취』의 해당 전문영역의 내용을 모태로 재편한 것이기 때문에 활용 면에 있어서 후대 의서의 인용문과는 성격이 다르다. 앞서 예시한 두 책에 모두 『의방유취』를 뜻하는 출전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내용의 대부분이 『의방유취』에 수록되었거나 수록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sup>8)</sup>

또 성종대 초간 이후에도 『救急簡易方』과 『醫門精要』가 나왔지만 이것 역시 『의방유취』

7) 참고. 「의방유취가 동의보감 편찬에 미친 영향」.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대한한학회, 2000.

8) 한국한의학연구원. 앞의 책, 제1부 서지학적 고찰.

의 해당 내용을 개편하거나 분량을 줄여 재편한 요약본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종합방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의방유취』를 단일 의서로 별도 인용하고 있는 『醫林撮要』와 『동의보감』에 이르러서야 그 인용현황을 조사해 볼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적어도 1445년 초판 이후 16세기까지는 『의방유취』의 절대적 영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각 의서의 실례를 들어 고찰해 보기로 하자. 『醫林撮要』는 편찬시기가 『동의보감』보다도 먼저이고 太醫이자 오랜 동안 首醫로 봉직했던 楊禮壽의 손을 거친 것이다.<sup>9)</sup> 따라서 『의방유취』가 많이 참고되었을 것으로 여겨졌으나 현전본에 실제 인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겨우 3회 밖에 검색되지 않는다.

**熨烙當歸散** 治寒濕流注腰腿疼痛經脈逆滯不得宣風

防風 當歸 藁本 獨活 荊芥 頑荊葉 各一兩如不得頑荊葉則代艾葉

右麤末每服一兩半塩四兩熨火炒令熱用絹帛袋盛熨之 類聚, 御藥方<sup>10)</sup>

**羚羊角丸** 治綠風內障肝肺風熱壅滯見紅白黑花頭額偏痛朝昏暗不見物

羚羊角 一兩 石決明 搗細研水飛 決明子 車前子 犀角屑 各七錢半 獨活 防風 蔓荊子 甘菊花 各半兩 吳藍子 卽藍實 甘草 灸 梔子仁 各半兩

右末蜜丸桐子大每於食後溫漿下二十圓 醫方類聚<sup>11)</sup>

**肉中腫起生瘤方** 敷藥貼結核處消癰毒

白斂 芎藭 白礬 別 當歸 大黃 黃芩 黃連 芍藥 各半兩 吳茱萸 二錢半

右末鷄子黃調塗於故帛隨大小貼之 出醫方類聚<sup>12)</sup>

3조의 인용문 중 두 번째의 영양각환은 『동의보감』 외형편 안문 內障에 인용되어 있고 세 번째 처방은 잡병편 제창에 化瘤膏라는 다른 이름으로 실려 있다. 다만 첫 번째의 처방 熨烙當歸散만은 『동의보감』 안에서 찾아 볼 수 없어 『의림촬요』에서 독자적으로 『의방유취』를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의림촬요』나 『동의보감』 등 후대 의서에서는 『의방유취』와 달리 처방명이나 일부 문자를 다소 정리하여 수록한 경우가 있다. 이것은 편집원

9)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醫林撮要』의 저자에 대해서 기록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홍균, 「의림촬요의 의사학적 연구」, 楊禮壽 서거400주년기념학술발표, 한국 의사학회, 1999.를 참조.

10) 『醫林撮要』 권7 腰痛門

11) 『醫林撮要』 권7 眼目門

12) 『醫林撮要』 권10 癭瘤方

칙과 인용기준이 분명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13)</sup>

1613년 2월 간행된 『新纂辟溫方』의 경우, 역시 『동의보감』의 간행<sup>14)</sup> 중 瘟疫門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의서로 편성된 것으로 주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類聚’ 인용문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몇 가지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우선 『동의보감』 온역문에서 사용된 ‘유취’ 인용문은 참고표에 나타난 것처럼 瘟疫之因 1조, 瘟疫治法의 神授太乙散, 茵陳丸 2조, 辟瘟豫防法에서 李子建殺鬼元, 太乙流金散 등 4조, 不傳染法 1조로 총8조로 조사되었다. 이 중 인진환을 제외한 7조가 『신찬벽온방』에도 인용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瘟疫禳法 3조와 蒸衣法 1조가 더 인용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 두 가지 문헌이 서로 직접적인 상호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침삭과 보완의 과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을 상호 대비해 보기로 하자.

#### 참고표 4. 『동의보감』 온역문과 『신찬벽온방』의 인용문 대비

---

13) 『의방유취』의 편제와 인용방식에 관해서는 안상우, 김남일. 「의방유취 총론의 체제와 인용방식 분석」. 경희한의대논문집, 1999;22(1). 참조

14) 『동의보감』은 1610년 편찬 완료되었고 1613년(光海君5년) 11월에야 비로소 간행되었다. 『신찬벽온방』은 1612년 겨울 전국에 번진 厲疫에 대처하기 위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것으로 이듬해 2월 간행되었다. 이것은 허준이 『동의보감』의 專門 분과를 떼어내어 별도 편집한 것으로 任元濬의 『창진집』이 『의방유취』 소아 疹痘門을 모태로 이루어진 과정과 비슷하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의방유취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대학원, 2000.을 참조.



서명	편제	인용문
東醫寶鑑	雜病·瘟疫 瘟疫之因	○時氣者天地不正之氣也非其時而有其氣一家無少長率病者時氣也又謂鬼厲之氣夫鬼無所歸乃爲厲爾若天地有不正之氣鬼厲依而爲祟楊玄操云謂雜其鬼厲之氣不知何經之動也亦其義也<類聚>
新纂辟溫方	疫雜鬼厲	○又謂鬼厲之氣夫鬼無所歸乃爲厲爾若夫天地有不正之氣鬼厲依而爲祟楊玄操云謂雜其鬼厲之氣不知何經之動也亦其義也<類聚>
東醫寶鑑	雜病·瘟疫 瘟疫治法 神授太乙散	治瘟疫流行不問陰陽兩感頭痛寒熱赤芍藥羌活藿香細辛青皮川芎白芷桔梗枳殼柴胡陳皮香附子蒼朮防風藁本甘草各七分乾葛升麻紫蘇葉各三分右剉作一貼入薑七棗七葱七水煎服<類聚>
新纂辟溫方	瘟疫通治 神授太乙散	通治瘟疫流行頭痛寒熱羌活赤芍藥藿香細辛青皮川芎白芷桔梗枳殼柴胡陳皮香附子蒼朮防風藁本甘草各七分乾葛升麻紫蘇葉各三分右剉作一貼入薑七棗七葱七水煎服<類聚>
東醫寶鑑	雜病·瘟疫 茵陳丸	治時行瘟疫及瘡瘡黃痘溫熱病即黃疸門瘡疽丸也每五丸溫水吞下<類聚>
新纂辟溫方	瘟疫裏證宜下 茵陳丸	治瘟疫熱病熱毒入裏發狂發黃茵陳梔子大黃芒硝各一兩杏仁六錢常山鱉甲巴豆霜各四錢豆豉二錢右爲末蒸餅和丸梧子大每五丸溫水吞下吐利瘥一名瘡疽丸<入門>
東醫寶鑑	□	□
新纂辟溫方	瘟疫禳法	一方회부보충四字以朱砂書大字貼門左右邊○又方元梵恢漠四字朱書佩之且吞服○又方密以艾灸病人床四角各一壯勿令病人知<類聚>
東醫寶鑑	雜病·瘟疫辟 瘟疫豫防法	○常以鷄鳴時淨心存誦四海神名三遍則辟百鬼及瘟疫火災甚效○東海神名阿明南海神名祝融西海神名巨乘北海神名禺(音雍)强<類聚>
新纂辟溫方	瘟疫辟法	○常以鷄鳴時淨心存誦四海神名三遍則辟百鬼及瘟疫甚效東海神名阿明南海神名祝融西海神名巨乘北海神名禺(音雍)强<類聚>
東醫寶鑑	雜病·瘟疫	○蘇合香元每取九丸浸一瓶清酒中時時飲之最辟鬼疫之氣又絳囊盛三丸當心帶之亦妙<類聚>
新纂辟溫方	瘟疫辟法	○蘇合香元每取九丸浸一瓶清酒中時時飲之最辟鬼疫之氣且絳囊盛三丸當心帶之亦妙<類聚>
東醫寶鑑	雜病·瘟疫 李子建殺鬼元	辟瘟疫殺一切鬼魅魍魎蘆三兩虎頭一兩半雄黃鬼白天雄皂莢蕪荑各五錢右爲末蜜丸皂子大熱病時氣燒一丸安床頭<類聚>
新纂辟溫方	瘟疫辟法 李子建殺鬼元	辟瘟疫殺一切鬼魅藜蘆三兩虎頭一兩半雄黃鬼白天雄皂莢蕪荑各五錢右爲末蜜丸皂子大每燒一丸安床頭<類聚>
東醫寶鑑	雜病·瘟疫 太乙流金散	大辟瘟疫雄黃一兩半羚羊角一兩雌黃礬石鬼箭羽各七錢半右爲麤末三角絳囊盛一兩帶心前并掛戶上又青布裹少許中庭燒之<類聚>
新纂辟溫方	瘟疫辟法 太乙流金散	大辟瘟疫雄黃一兩半羚羊角一兩雌黃礬石鬼箭羽各七錢半右爲麤末三角絳囊盛一兩帶心前并掛戶上又青布裹少許中庭燒之<類聚>
東醫寶鑑	雜病·瘟疫不 傳染法	○傷寒熱病傳染者因聞大汗穢毒以致傳染故聖惠方曰大汗出則懸藥於戶解其穢毒無使傷於人也親屬侍奉之人勞役氣虛而爲變亂何以知其傳染者脉不浮是也治法自汗者蒼朮白虎湯無汗者益元散合涼膈散熱散而愈<類聚>
新纂辟溫方	不傳染法	○熱病傳染者因聞大汗穢毒以致傳染故聖惠方曰大汗出則懸藥於戶解其穢毒無使傷於人也<類聚>
東醫寶鑑	□	□
新纂辟溫方	不傳染法 蒸衣法	家染時疫取初病人衣服浣洗令淨飯甑中蒸之即無傳染之患矣<類聚>

이와 같은 결과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진 『診解胎産集要』와 『診解痘瘡集要』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동의보감』 雜病篇十 婦人門 下死胎와 『언해태산집요』의 下死胎의 一文은 문장만 약간 개변된 상태이다.

### 참고표 5. 『동의보감』과 언해 의서의 인용문 대비

서명	편제	인용문
東醫寶鑑	雜病·婦人 下死胎	○雙胎一死一生服此則死者出生者安蟹瓜一升大甘草五錢半生半炒東流水十盞煎至三盞去滓入阿膠二兩半生半炒令消化分二次頓服即出藥竈宜東向用葦爲薪<類聚>
診解胎産集要	下死胎	一方胎死腹中或有兩胎一生一死服此則死者出生者安蟹瓜一升大甘草五錢半生半炒阿膠二兩半生半炒右剉以東流水七盞於東向藥竈用葦爲薪火煎至三盞去滓入阿膠令融化分三次頓服神效<醫方類聚>
東醫寶鑑	雜病·小兒 痘瘡亦時氣之一端	凡傷寒時氣熱毒內盛多發炮瘡其瘡大小形如豌豆故謂之豌豆瘡其色或白或赤若頭作癩漿戴白膿者其毒則輕若紫黑色作根隱隱在肌肉裏者其毒則重甚則周匝遍身五內七竅皆有也
診解痘瘡集要	□	□
東醫寶鑑	雜病·小兒解毒 黑散子	解痘毒初出服此便消不出臘月猪糞瓶子盛瓦片盖口火煨存性放冷研細每二錢新水調下<類聚>
診解痘瘡集要	卷上/解毒	解痘毒初出服此便消不出臘月猪糞餅子盛瓦片盖口火煨存性研細每二錢新水調下<聖濟總錄>
東醫寶鑑	雜病·小兒咬 牙	上下齒相磨切有聲謂之齧齒即咬牙也亦曰憂齒<類聚>
診解痘瘡集要	卷下/咬牙	醫方類聚曰上下齒相磨切有聲謂之齧齒即咬牙也亦曰憂齒

『언해두창집요』의 경우 『동의보감』 雜病篇十一 小兒門의 痘瘡조와 대비된다. 위의 표에서 咬牙 一文은 두 가지 책에서 모두 동일하게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동의보감』의 痘瘡亦時氣之一端의 유취 인용문이 『언해두창집요』에서 보이지 않으며, 解毒조의 黑散子방은 『언해두창집요』에서 출전이 ‘유취’가 아닌 <聖濟總錄>으로 되어 있다. 『동의보감』의 출전 표기 방식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아직 정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언해두창집요』를 서지학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로 다른 출전의 표기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재인용의 경우, 동의보감 간행 중 출전의 오류 시정, 刻手의 실수, 시급한 편찬과정상의 오류 등등.....<sup>15)</sup>

이상의 조사결과로 보아 『의림촬요』를 비롯하여 『동의보감』 및 비슷한 시기에 집필된 『언해태산집요』, 『언해두창집요』, 『신찬벽운방』 등에서는 『의방유취』를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어도 이 무렵까지는 『의방유취』 원본이 존재했고 다수의 의서 편찬 시 기본서로 채택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임진정유 양대 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에 약탈당한 1질만이 유일한 전본으로 남아 있고 국내에는 거의 傳存되지

15) 金重權. 앞의 논문.

못한 사실과 부합된다.

## 2.2 동의보감 간행 이후 의서의 인용

이제 『동의보감』과 허준 이후의 후대 의서를 고찰해 보기로 하자. 『동의보감』 간행 이후의 의서 중 유취를 인용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으로 『救荒撮要』가 있다. 이 책의 원형태는 세종대 편찬된 『救荒辟穀方』(佚)임에 분명하지만 安瑋의 『救荒切要』(1541), 明宗命撰의 『救荒撮要』(1554), 金堉의 『救荒撮要』(1639)를 거쳐 申澍이 救荒補遺方을 덧붙여 펴낸 『新刊救荒撮要』(1660)로 정리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 고찰이 어렵다. 하지만 현전본에 보이는 ‘辟穀絶食方’ 인용문이 救荒補遺方に 속해 있기 때문에 『新刊救荒撮要』의 의방유취 인용문은 일단 『동의보감』 편찬 이후의 흔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 ○辟穀絶食方

年荒穀貴或遠方水火不便或修行人欲休糧宜服此黑豆五升淘洗蒸三遍曬乾去皮爲末大麻子三升(一作五升)湯浸一宿灑出曬乾蒸三遍令口開去皮爲末用糯米粥合和搗勻成團如拳大再入甑蒸之從夜至子住火至寅取出磁器盛蓋勿令風乾每服一二塊以飽爲度不得喫一切物第一頓七日不食第二頓七七日不食第三頓一百日不食第四頓永不飢容貌佳勝更不憔悴如渴則飲大麻汁以滋潤臟腑若要喫物服葵菜湯解之或葵子三合杵碎煎湯冷服亦可○一方有白茯苓五兩

(類聚○大麻子非閩里所種之麻俗云虎茺而未詳)

위 인용문은 『동의보감』 잡병편9 雜方門 斷穀不飢藥조의 辟穀絶食方の 내용과 같다. 『동의보감』 원문과 대비하여 문자상 장부의 육달월이 붙은 것과 출전주기 아래의 편집자 주석과 언해가 붙은 것을 제외하곤 원문이 같아 직접 인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동의보감』 이후 ‘유취’ 인용문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책은 徐有榘의 『仁濟志』이다. 결과를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동의보감』의 ‘유취’ 인용문 중 대부분이 인제지에 그대로 다시 인용되어 있다. 물론 『인제지』가 『동의보감』을 주요 참고서로 채택한 결과이지만, 재편, 증보 과정에서도 거의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 다만 편제가 달라진 이유로 인용문의 수록 위치는 많이 달라져 있으며, 다소 개변된 곳도 적지 않다. 내경편의 경우, 서유구의 『林園十六志』에서는 양생도인을 중심으로 별편을 구성한 『葆養志』에 『동의보감』이 다수 인용되어 있으나 ‘유취’ 인용문은 수록되지 않았다.

시기적으로는 서유구의 책보다 앞서서 『제증신편』(8권), 『의문보감』(8권), 『광제비급』(4권) 등의 서적은 애초에 『동의보감』의 참고비율이 더욱 높지만 편찬의도 자체가 내용을

간략하고 실용에 부응하려는 의도가 강하여 분량 면에서 훨씬 축약되었기 때문에 인용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 조사결과 인용문은 모두 『동의보감』에 인용된 것에 국한되어 있어 『동의보감』에서 채록한 재인용으로 보인다. 여타 더 후대의 책 중 『의종손익』, 『의감증마』 등에서 『의방유취』가 주요 인거서로 다뤄져 있고 문장과 처방이 지속적으로 인용되어 있지만 역시 대조결과 『동의보감』 인용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방유취』는 『동의보감』의 편찬시점인 1610년 무렵까지는 직접 인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로는 원본의 亡失 혹은 열람의 어려움과 동의보감을 위주로 진행된 실용 방식의 집필 경향 등의 이유로 직접 이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조선전기와 후기의 『의방유취』 활용양태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조선전기 『의방유취』 편찬과 교정, 간행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나온 전문의서 즉, 『구급방』, 『창진집』, 『간이벽온방』 등은 『의방유취』를 표방하지 않았으나 『의방유취』의 내용 중 해당 분과 全文을 재편하여 이루어진 부속서로서의 성격이 절대적이다. 이와 같은 종합 의서의 편찬과 전문의서 속편의 연계고리는 『동의보감』의 편찬을 중심으로 진행된 허준의 언해본 의서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그대로 반복된다.<sup>16)</sup>

『동의보감』에서는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가 중국의 의경방서와 동등한 위치에서 ‘歷代醫方’에 올랐으며, 이것은 자국의학을 선진의학과 동열의 위치에 논위하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실제 이후 의서에서 『의방유취』를 직접 인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引據書로 채택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상에서 고찰한 후대 의서의 『의방유취』 인용회수와 인용서목 편입 현황을 다음의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 참고표 6. 후대 의서의 유취 인용 현황

서명	간행연대	인용회수	인용표기	소재
東醫寶鑑	1610년	171	醫方類聚 本國祖宗朝命文官醫官撰集	歷代醫方
新刊救荒撮要	1660년	1	□	□
醫林撮要	1700년경	3	□	歷代醫學姓氏 <sup>17)</sup>
醫門寶鑑	1724년	5	醫學類聚	引用書目
廣濟秘笈	1790년	4	□	引用書目
仁濟志	1827년경	121	醫方類聚 本朝	林園十六志引用書目
醫宗損益	1868년	15	醫方類聚 本國文臣醫官撰	引用諸書
醫鑑重磨	1906년	19	醫方類聚 本國祖宗朝命文官醫官撰集	寶鑑所引歷代醫方

16) 줄고, 「의방유취 편찬과 조선 전기 의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1999.

17) 의림찰요의 초편시기는 명중 무렵으로 추정되나 여러 차례 증보 간행되었기 때문에 현전하는 내용이 동의보감보다 앞선다고 단언하기 곤란하며, 특히 역대의학성씨는 의학입문의 것을 차용하여 개편한 것으로 허준과 양예수가 본국명의로 올라있기에 당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적어도 역대의학성씨 만큼은 동의보감 이후에 진행된 증보개편 과정에서 추록된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

이상의 조사결과와 앞서 진행한 실제 인용현황을 놓고 분석해 보면 『동의보감』의 편찬을 전후로 직접 인용되었던 『의방유취』는 18세기 이후 이름만 남았거나 『동의보감』을 통해 재인용하는 것 이외에는 실제 인용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의림촬요』와 『광제비급』에서 ‘類聚’ 인용문이 수록되어 있고 다수의 자국 의서와 향약 의서가 인용서목에 등장함에도 『의방유취』라는 서명이 인용서목에 보이지 않는 것은 원본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당시 정황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8세기를 거쳐 19세기 초반까지도 『의방유취』는 거의 잊혀진 의서였으며, 서유구의 『임원십육지』와 1868년 黃度淵의 『醫宗損益』에 다시 등장할 때까지 거명되지 않았다.

일본에서 多紀家の 보존장서로 전해오던 『의방유취』가 喜多村直寬의 발의로 木活字縮版重刊된 것이 1861년이며, 1876년(명치9년)에 丙子修護條約의 선사품으로 조선정부에 기증되어 돌아온다. 따라서 황도연의 『의종손익』과 李奎峻의 醫鑑重磨에서의 『의방유취』 인용은 편찬시기로 보아서 일본에서의 『의방유취』 복간에 따른 반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의감중마』는 기본적으로 『동의보감』을 재해석하는 작업의 소산물이어서 『동의보감』 원문 중의 ‘유취’ 인용문이 들어간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하겠지만 독자적인 인용양태는 보이지 않는다. 『의종손익』, 『의감중마』 등 근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의방유취』가 역대 본국 의서 중 주요 의서로 수록된 것은 원본의 일실로 직접 활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학사에서 의방유취가 차지하는 상징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결 어

『의방유취』로 대표되는 조선 전기의학의 성취가 『동의보감』의 편찬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동의보감』 이후의 의서에서 반영된 학술적 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의보감의 ‘類聚’인용문을 조사 분석하였다. 아울러 『동의보감』의 간행을 전후로 이루어진 당대 의서와 후대 의서의 인용도와 인용율을 조사하여 『의방유취』가 후대 의학에 활용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견을 얻을 수 있었다.

『동의보감』에서는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편의 5대편에 걸쳐 골고루 『의방유취』가 인용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내경, 외형, 잡병 3편의 병증 각목은 『의방유취』의 세분된 질병분류가 재편된 것이며 실제 인용도 역시 높은 편이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경편의 경우 『의방유취』의 오장문, 양성문으로부터, 외형편의 경우 안, 인후문 등의 실제 내용의 인용빈도, 잡병편의 경우 질병분류 체계와 인용도에서 영향

성이 인정된다.

『동의보감』 이전의 의학서적으로 『의방유취』가 인용된 것은 세종대 편찬된 『救荒撮要』가 있으며, 『의림촬요』에서 3조가 인용되었다. 『동의보감』 편찬을 전후로 허준의 ‘언해의서’에서 다수의 ‘유취’ 인용문이 독자적으로 수록되어 적어도 『동의보감』 편찬 무렵까지는 의방유취가 주요 인거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의보감』 간행 이후의 의서로서 『醫門寶鑑』, 『廣濟秘笈』 등에서 일부 ‘유취’가 인용되었으나 인용도는 매우 빈약하며, 『仁濟志』에서 120여 회의 높은 인용도를 보이지만 이들 모두가 『동의보감』을 통한 재인용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종손익』, 『의감중마』 등 근세에 이르기까지 『의방유취』가 역대 본국 의서 중 주요 인거서로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원본의 일실로 직접 활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학사에서 의방유취가 갖는 상징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록:

부록 1. 동의보감의 유취 인용문 조사표

부록 2. 후대 의서의 유취 인용문 조사표

\* 부록은 지면관계상 생략함.

\* 참고문헌은 주석으로 대신함.